

朝鮮, THE MORNING CALM

61호

1895년 7월

□ 서지사항

- 제목 : 〈朝鮮, THE MORNING CALM〉 61호
- 발행인 : 영국성공회 조선선교회
- 발행지 : 영국 런던
- 발행일 : 1895년 7월
- 페이지 수 : 20(표지 포함)

□ 목차

Cover (표지) -----	(i)
The Mission (조선선교회 선교사 명단과 영국 본부 주소와 담당자) -----	ii
Hospital Naval Fund. (해군병원기금 운영진, 송금 안내) -----	i
S.P.G. Special Fund (봉헌 내역) -----	v
Hospital Naval Fund (봉헌 내역) -----	v
Education Fund (봉헌 내역) -----	iv
Children's Fund (봉헌 내역) -----	iv
St. Peter's Community Foreign Mission Association (봉헌 내역) -----	iv
The Bishop's Letter (코프 주교가 1895년 3월 서울에서 보낸 서신) -----	89)
Association of Prayer and Work for Corea(조선선교 지원협회) -----	92
The Spirit of Missions -----	93
(지도) Korea -----	(100)
Education Fund (교육기금 위원회 소개) -----	v
July (1895년 7월의 기도표) -----	v
Association of Prayer and Work for Corea (조선선교 지원협회 지역 총무 명단) -----	vi
Notices (조선선교 지원협회 소모임 알림) -----	viii

□ Mission Staff List-1895년 7월, 61호에 있는 조선선교회 명단

BISHOP.

The Right Rev. CHARLES JOHN CORFE, D.D., All Souls College, Oxford; Hon. Chaplain to H.R.H. The Duke of Saxe-Coburg and Gotha, Duke of Edinburgh; Chaplain, R.N. (retired).

PRIESTS.

The Rev. MARK NAPIER TROLLOPE, M.A., New College, Oxford (Bishop's Chaplain and Senior Priest of the Mission), St. Martin's, Beckenham, Kent.

The Rev. FREDERICK WILLIAM DOXAT, B.A., Oriel College, Oxford.

The Rev. HERBERT HAMILTON KELLY, M.A., Queen's College, Oxford, and 97 Vassal Road, S.W.

The Rev. LEONARD OTTLEY WARNER, St. Augustine's College, Canterbury.

The Rev. MAURICE W. DAVIES, St. Boniface College, Warminster.

SISTERS.

Sr. NORA (in charge), Sr. ROSALIE, Sr. ALMA, Sr. MARGARETTA, Lay-Sr. LOIS, Nurse WEBSTER (Lay-Associate).

E. B. LANDIS, M.D.

EDWARD HENRY BALDOCK, M.R.C.S.E. and L.R.C.P.L.

Lady Doctor — Miss LOUISA COOKE, L.R.C.P. and S., Edin.

Lay Helpers — J. W. HODGE, W. SMART.

THE BISHOP'S COMMISSIONARIES.

Rev. C. E. BROOKE, Vicarage, Vassall Road, Brixton, S.W. (for general purposes).

Rev. G. R. BULLOCK-WEBSTER, The Palace, Ely (for the Universities).

Rev. J. C. COX-EDWARDS, M.A., Chaplain of the Fleet, 39 Spring Gardens, S.W.

(for the Royal Navy and Royal Marines).

□ 해제

영국성공회 조선선교회가 런던에서 펴낸 잡지 〈모닝캄〉 61호, 1895년 7월에 발행되었다.

코프 주교(The Right Rev. Charles John Corfe, 한국명 고요한)는 해병 경비대의 철수로 인한 공백과 새로운 병원 건축, 그리고 고아 돌봄에 대한 깊은 고민을 드러낸다. 특히, 베드로 수녀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발독 의사, 쿡 의사의 의료 활동은 조선 내에서 선교회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준다.

비숍 여사의 기증으로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병원 건축이 정동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낙동에서 와일스(Wiles) 의사가 성마태병원을 일으켰던 것과 같이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동 병원이 큰 병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현재는 병원 운영에 주력하고 있는 수녀회가 향후 고아들을 위한 시설 마련과 운영에 꼭 필요한 역량과 인력이기 때문이다. 강력한 선교 동역자로서의 수녀회에 대한 신뢰가 구절마다 보인다. 코

프 주교는 이렇게 5-10년의 조선선교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나아가고 있다.

선교사 통신에는 청일전쟁으로 일본 오사카에 잡혀 온 중국 군인들에게 전도하려는 선교사들의 보고서가 담겨있다.

The Bishop's Letters – 주교통신

서울: 1895년 3월

그리운 벗들께,

지난번 편지에서는 해병 경비대가 종영사관에서 철수했다는 소식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난가을부터 우리 모두에게 매우 반가운 방문객이었고, 그들의 떠남은 큰 공백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붉은 군복이(영국 해병을 의미함) 나타나기 전과 똑같은 생활 방식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

이번 달 초에 저는 도쿄에 있는 미국 교회의 맥김(McKim) 주교에게 안수를 받은 두 명의 일본인 성직자의 방문을 받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들은 주교의 소개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었더라도 환영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행히도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누기에 충분한 영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2주간의 휴가를 조선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들이 서울에 머무는 기간 그들과 함께 선교관에서 지내게 되어 기뻤습니다. 하지만 성찬례를 같이 거행하자는 저의 제안에 그만큼 영어를 잘하지는 못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날, 우리의 주일 성찬례에 참석하면서 그들도 우리만큼 즐거웠다고 봅니다. (...)

여행자인 비숍(Bishop) 여사가 조선을 떠나기 전에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편안한 병원을 짓기 위한 많은 돈을 선물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낙동 병원의 경험이 정동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와일스 의사는 낙동에서 진료소와 함께 실험적으로 작은 한옥에 입원실을 만들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성마태병원으로 성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동도 진료소와 함께 그 옆에 작은 한옥을 입원실로 쓰고 있었는데, 비숍 여사는 쿠(Cooke) 의사의 사업에 큰 관심이 있어, 여성 환자들이 더 나은 환경을 갖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비숍 여사는 정동 사업에 그녀의 바람과 함께 지원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가로 마련하는 병원 건물을 수용할 만큼 부지가 넓지 않아 (서울에 마련한 조선선교회의 첫 교회이자 첫 사제관이었던 역사적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쿠 의사가 살았던 집을 철거하고 비숍 여사의 병원을 그 부지에 짓기로 했습니다. (...) 비숍 여사의 호의를 선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용기를 준 수녀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성 의료 사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책임을 맡을 방법을 찾지 못해 그 친절한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했었습니다. 그때, 수녀님들은 특유의 용기와 후원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병원의 책임을 수녀회가 짊어지고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했고 수녀님들과 많은 생각과 상의 끝에 즉시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입원 환자를 위한 더 많은 공간과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있어서 조만간 더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을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현재 병원을 통해 고아들이 우리에게 올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조만간 영국에 있는 어린이들이 지난 5년 동안 저희에게 보내준 (고아들을 위한) 돈을 쓰고자 합니다. 다만 고아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고아를 돌볼 수 없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 중 남자들은 맡을 수 없고, 여자들은 종일 병동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급해하지도 않겠지만 기회를 놓치지도 않겠습니다. 수녀님들이 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있다고 말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 병원 근처에 집을 구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수녀님들이 갑자기 고아를 맡아야 할 처지가 되면 와일스 의사가 살았던 한옥을 쓰려고 합니다. 그곳은 훌륭한 임시 보호소가 될 것입니다. 그 부지에는 나무를 베지 않고도 훨씬 더 큰 집을 지을 공간이 있습니다. 책임을 맡은 수녀님이 (영국에 있는) 수녀원장께 이 사업을 확실히 맡을 선교사를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발독 의사의 환자는 여전히 많으며, 그와 수녀들이 관리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을, 그리고 중요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술과 성공은 다른 사람들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낙동 동쪽에 병원을 개원할 예정이고, 미국 감리교는 서쪽에 병원을 개원할 예정이며, 미국 장로교는 북쪽에, 한때 왕립병원이었던 곳에서, 병원 열고 있습니다. (...)

마침내 강의 얼음이 사라져 워너(Warner) 사제는 주일 예배를 위해 제물포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시간을 마포에 있는 우리 집에서 보내고, 일주일에 두 번 서울에 가서 장림 성당에서 데이비스(Davies) 사제를 둡습니다. 스마트(Smart) 사제는 도쿄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일본어를 충분히 구사하여 집을 방문하는 현지 신자들과 간단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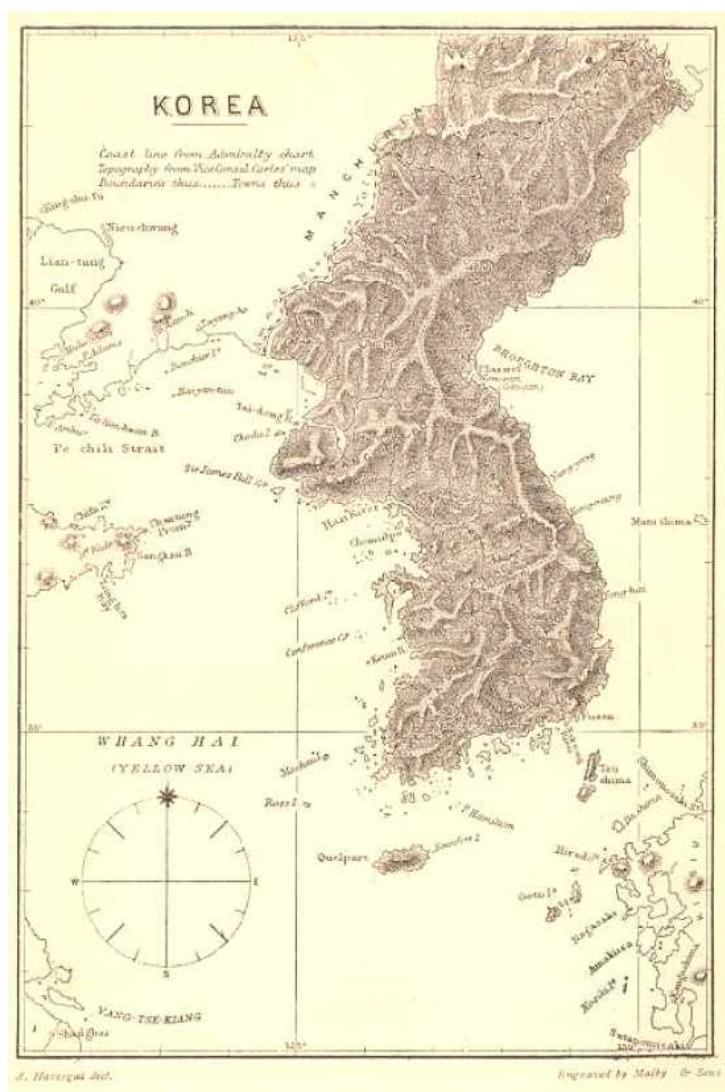
우리는 모두 잘 지내고 있으며, 저는 누구보다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정한 벗,

* C. J. 코프

그래픽 자료- 지도 1장

Korea(조선 지도) - 1894년 1월호(통권 43호)에 들어 있는 지도가 다시 실렸다. 지도 제목은 Korea로 돼 있고, 메르카토르 투영법에 따라 그리되, 중국의 주요 지명을 포함하기 위해 경도를 0.5인치에서 0.45인치로 약간 줄여서 제작했다는 것과 영국 해군성 수로국의 해버갈 중위 (A. Havergal)가 그렸으며, 지도 전문 회사인 말비 앤 선스(Malby and Sons)사가 제작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침생각

이번 호 코프 주교의 주교통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아원 설립에 대한 깊은 고뇌와 준비이다.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것은 아니지만, 코프 주교는 고아들을 위한 임시 거처 마련과 장기적인 보금자리 건설을 구상하며 기도하고 있다. 그 시작을 보면, 정동에 있던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장림병원’에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쿡 의사와 성베드로회 수녀들에 감동한 비숍 여사가 기금을 보탠 것이 계기가 된다. 더 넓고 큰 병원 건물을 짓더라도 운영과 유지할 자금과 인력이 필요하기에 주저하고 있던 코프 주교를 수녀회에서 나서서 자신들이 그러한 것들을 책임지겠으니 맡겨달라고 요청하니 용기를 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난 5년 동안, 그때를 기다렸던 ‘고아원 사업’의 시작이 된다. 하느님의 인도는 이렇게 멀리서부터 오고 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우리의 할 일을 할 뿐이다. (※)